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7~9/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봉암사동안거일기	산강 대혜 스님	불교신문사
2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부처님의가르침불자의실천	조계종출판사	조계종출판사
3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불멸(1)영원한지금의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4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마음챙김과자비:자비로운마음훈련	폴 길버트,초덴 공저	학지사
5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10	중국불교(불교입문총서7)	계환 지음	민족사

“기억해요 지금 그대가 가장 소중함을”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주석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6000원



주석 스님이 8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주석 스님이 전하는 다정한 위로들
격려 메시지 담은 산문, 名詩 담아
자존감 높이는 스님의 一句들 눈길
오는 9월 5일 쿠무다서 북콘서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늘 잘 살아내는 사람만이 기도할 자격이 있다.”(138쪽)

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이 8월 27일 열린 출판기자간담회에서의 현대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구(一句)다.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어떤 대상이든 두 손을 모아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기자신에게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찰하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확고한 자기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송정 바닷가에 건립한 복합예술공간 쿠무다에서 문화와 예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주석 스님이 두 번째 산문집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를 펴냈다.

주석 스님은 2020년 첫 산문집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를 선보일 무렵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적지 않은 고통과 실의를 느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님을 일으켜 세운 것은 언어의 힘, 말의 힘이었다. 스님은 따뜻한 말과 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믿음으로 매일 아침 네이버 밴드에 위로의 편지를 띄웠다. 그 소중한 글을 가려 묶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1부 ‘사색하는 아침’은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석 스님이 보내는 맑은 편지다. 짧은 아포리즘을 통해 스님은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잘 살아내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함을, 타인의 세계를 존중할수록 내 세계도 깊어짐을, 파도 거센 날이 삶이 더욱 깊어지는 날임을, 그리하여 지금 발 딛고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중심임을 일러 준다.

2부 ‘시가 있는 저녁’에는 스님이 직접 고른 명시(名詩)에 마음을 다독이는 짧은 감상을 덧붙인 글을 가려 담았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후회와 아쉬움에 쓸쓸한 마음이 들 즈음, 스님은 평소 아껴 읽던 시 한 편을 들려주며 “그저 눈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숨 쉬는 오늘이 가장 큰 일”이라고 우리를 다독인다. 스님의 이런 다정함에 공감한 시인들은 기꺼이 이 책에 자신의 시를 내어주었다.

서정시의 거장 정호승 시인 역시 “이 책은 시인의 마음을 지니신 부처님께서 주석 스님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쓰신 한 권의 시집이자 명상록”이라는 추천사로 주석 스님의 글에 공감을 표했다.

주석 스님의 글들은 ‘지금 여기’를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이는 첫 번째 산문집과도 동일하다.

“첫 번째 산문집에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황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썼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죠. 임제 선사께서도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지나간 것에 너무 연연해 살지 말고 온전한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문화포교라는 서원을 세우고 대작 불사를 일궈온 주석 스님은 그간의 활동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듣고 문화를 향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쿠무다’라는 공간은 ‘완전한 깨달음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라는 뜻이다. “저의 아포리즘을 통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임을, 그럼에도 사람임을 세상의 가장 중심인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이 책 역시 ‘완전한 깨달음과 행복’으로 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 줄 것이다.

한편, 이번 책 출간을 기념해 오는 9월 5일 부산 쿠무다콘서트홀에서 주석 스님 북콘서트와 저자 사인회가 열릴 예정이다.

▲저자 **주석 스님**은?

1988년 법주사 수정암으로 출가해 부산 대운사 주지와 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소임을 맡고 있다. 완전한 깨달음과 행복으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길 서원하며 방송과 인터넷으로 일상의 소중함으로 나누고 있다.

초기불교 출가자, 세속과 인연 단절 않았다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관계
쉐인 클라크 지음
임은정 옮김/ 운주사
2만 5000원

현대에서 출가는 세속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소소한 사회적 관계는 물론이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것이야말로 출가의 첫발, 출가 의지의 발현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는 부처님 당시부터, 초기불교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여긴다. 과연 그러한가?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 관계〉를 저술한 쉐인 클라크 캐나다 맥마스터 교수는 “출가 수행자는 결코 세속 가족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현대 서양에서는 크게 2가지 인상에 기초해 인도 승가를 이해했다. 첫째는 중세 기독교 수도회와 관련해 생각했던 개념으로, 둘째는 남방상좌부 불교로 전해져온 전통과 규범적인 문헌에서 보았던 이상적 비구에 대한 환상으로 승가를 이해했다. 현대 서양에서는 이런 개념과 환상으로 승가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이 책은 초기 승가 관행에서 보이는 부분을 조명하여 ‘길 위의 삶’이 필연적으로 모든 가족과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인도불교 승가의 본질에 관한 몇 가지 근본적인 가설에 효과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불교 수행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가족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오히려 승가는 수계 후에도 지속해서 가족이나 친족과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관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관계를 유지했다고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쉐인 클라크는 인도불교 법전(비나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무소의 뿔 경’에서와는 달리 인도불교 작가들이 가족적 인연을 포기하기는커녕, 자신의 법적 범위 안에서 비구와 비구니가 가족과 계속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중국어로 보존된 인도불교 율장의 여전히 미지의 영역을 조사한 클라크는 이 책을 통해 가족에 대한 불교 승려들의 태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인도 전역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에서 결혼과 출산은 어떤 의미일까

진흥원 〈불교문화〉 9월호 발간



불교에서는 결혼, 출산을 어떤 의미로 볼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불교문화잡지 월간〈불교문화〉 9월호(통권 제289호)를 발간했다.

불교문화 9월호의 특집 주제는 ‘불교에서는 결혼, 출산을 어떤 의미로 보나’이다.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불교에서도 이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특집은 결혼이 단순히 사회적 제도나 개인의 선택을 넘어, 불교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부교수는 ‘초기불교에서 보는 결혼과 출산의 의미’를 주제로 부처님은 결혼과 출산을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 보았음을 전했다.

김원명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교수는 ‘대승불교적 관점에서의 결혼과 출산’을 통해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재가자의 결혼과 출산도 연기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결혼과 출산’에서 현대 사회가 ‘기능 분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족의 부차적 기능이 사회제도로 이관되어 가족의 위상이 하락했으며, 사랑과 친밀성의 형식이 변화하여 낮은 출산율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신중일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5차분 12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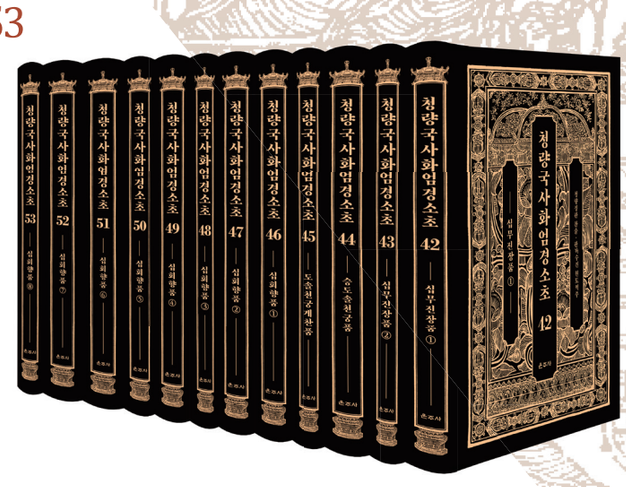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53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제22 십무진장품부터 제23 승도솔천궁품, 제24 도솔천궁게찬품, 제25 십회향품까지 12권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